

## 진지한 캠핑 참여자의 행동 의도 구조 분석: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적용

이유진<sup>1</sup> · 황선환<sup>2</sup>

<sup>1</sup>서울시립대학교 도시노인건강운동연구소 연구교수 · <sup>2</sup>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 Structural Analysis of Behavioral Intentions among Serious Camping Participants: Applying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Lee, Yujin<sup>1</sup> · Hwang, Sunhwan<sup>2</sup>

<sup>1-2</sup>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sustained behavioral intention among Serious Camping Participants, who actively engage in camping as a form of Serious Leisure, based on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active participants in serious camping activities, resulting in 404 valid samples.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roposed structural model demonstrated excellent fit and exhibited strong explanatory power in accounting for the variance in behavioral inten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re variables of the original TPB, namely Attitude and Subjective Norm, we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Desire for camping and were thus rejected. Second, both the expected enjoyment from the activity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and the avoidance motivation to prevent the sense of loss if the activity is absent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were confirmed as key drivers, showing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Desire. Third, whil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Desire, it was found to be fully mediated through Desire, showing no direc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Finally, Desire exerted the strongest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 This study provides an academic and practic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emotion-centered marketing strategies and promoting sustained leisure participation by identifying that the sustained behavioral intention of serious camping participants stems from intrinsic aspirations formed by ambivalent anticipatory emotions of positive reward and negative loss avoidance.

**Key words :** Serious Leisure, Camping, Behavioral Inten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이 논문은 202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C2A02022644).

주요어 : 진지한 여가, 캠핑, 행동의도, 구조모형방정식, 목표지향적 행동 모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wang, Sunhwan

University of Seoul, Seoulsiripdae-ro 163, Dongdaemun-gu, Seoul, Korea

E-mail: shhwang@uos.ac.kr

Received: January, 27, 2026 Revised: March, 16, 2026 Accepted: March, 23, 202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가 경험은 관광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나, 그 속성이 매우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이어서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측정하기에 까다로운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Coghlan, 2012; Kim et al., 2012; Pernecky & Jamal, 2010). 일찍이 Clawson & Knetsch(1966)는 여가를 단순히 특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활동 전의 기대와 계획, 목적지로의 이동, 실제 현장 활동,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귀가 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활동에 대한 회상과 기억에 이르는 ‘다단계적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생태적·사회적 자극에 노출되며, 이는 단순한 휴식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심리적 회복과 내면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Cole, 2004; Hassell et al., 2015).

이러한 다층적 여가 경험의 가치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활동 중 하나인 캠핑은 한국관광공사(2023)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캠핑 참여 인구(Camping population)가 3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적 여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현대의 캠핑은 텐트 설치와 같은 기술적 습득 과정부터 자연과의 깊은 교감, 공동체 활동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건강과 웰빙을 도모하는 독특한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캠핑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현실 도피적 기능을 넘어, 자기 인식과 개인적 갱신을 가능케 하는 ‘초월적 경험’으로서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Henderson et al., 2005; Schouten et al., 2007).

이처럼 캠핑이 단순한 일시적 유희를 넘어

자기 계발과 심신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정착됨에 따라(Kaplan, 1995), 참여자가 추구하는 여가의 깊이와 지속적인 몰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틀로써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이하 SL) 개념이 학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Arai, 2000; Gallant, 2011). Stebbins(1982, 1992)는 SL을 ‘개인이 전문적인 기술, 지식, 경험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몰입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와 구별 짓는 여섯 가지의 고유한 정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역경을 극복하려는 ‘인내의 필요성’, 둘째,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발휘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 셋째, 활동의 지속을 통해 일정한 성취와 발전을 이루는 ‘여가 경력의 형성’, 넷째, 해당 활동을 공유하는 이들만의 독특한 사회적 세계인 ‘에토스(Ethos)의 채택’, 다섯째, 활동 자체와 개인의 자아를 밀접하게 결합하는 ‘강한 정체성 동일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정서적·사회적 차원의 ‘지속적인 보상과 혜택’이 그것이다(Stebbins, 2007). 한국의 캠핑 참여자들 역시 고가의 전문 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고난도 캠핑 기술의 습득 노력, 정기적인 참여를 통한 강력한 커뮤니티 형성 등 SL의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경험은 참여자의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반복적인 행동 의도를 강화하는 중추적인 기제가 된다(민경일 외, 2025; 이유진, 2024).

그러나 개인의 복잡한 의사결정 및 행동 형성 과정을 예측함에 있어 기존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TPB)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인지적 변인에만 치중하여, 여가 활동의 본질적 동력인 정서와 내면적 열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Conner & Sparks, 2005). 이러한 학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Perugini & Bagozzi(2001)는 TPB의 구조적 틀에 긍정적·부정적 예기 정서(Anticipated Emotion)와 열망(Desire)이라는 핵심적인 동기 변수를 통합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이하 MGB)을 제안하였다. MGB는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에 대한 정서적 기대와 강렬한 열망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며, 사회심리학 및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에서 높은 설명력을 갖춘 대안적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Carrus et al., 2008; Esposito et al., 2016).

나아가 본 연구는 일반적인 MGB의 구조적 틀에 SL 참여자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이하 EMGB)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EMGB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생변인을 추가하는 기술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진지한 여가 참여자라는 특수 집단의 맥락을 반영하여 모형의 경로와 해석을 정교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성과 과거 경험을 모형 내 독립 변수로 개별 투입하는 대신, 연구 대상자 선정 단계(Inclusion Criteria)에서 캠핑 경력, 숙련도, 활동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지한 캠핑 집단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집함으로써 전문성이라는 속성을 모형 전체의 기저에 내재화하였다.

이는 캠핑과 같이 장기적인 헌신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여가의 경우, 참여자가 과거부터 축적해 온 전문 지식과 반복된 행동 경험이 미래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공개, 사혜지, 2024; Bettman & Park, 1980). 선행 연구에 따르면, 특정 여가 분야에 대한 사전지식이 풍부한 참여자는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일반 참여자와는 차별화된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Bettman & Sujan, 1987; Johnson & Mervis, 1997).

따라서 SL 캠퍼들의 전문성과 누적된 참여 경험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열망(Desire)을 더욱 구체화하는 동시에,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기대가 실제 행동 의도로 전이되는 과정을 강력하게 매개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캠핑에 대한 높은 심리적 몰입과 정체성을 확립한 참여자들에게 있어 과거의 행동 궤적과 숙련된 지식은 미래의 참여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심리적 기제이며, 이를 포괄하는 EMGB의 적용은 기존 여가 행동 모델이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 '장기적 헌신'과 '지속적 참여'의 경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진지한 캠핑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적 숙련도, 지식의 깊이,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투영된 EMGB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진지한 여가 참여자의 행동 형성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일회적 참여자가 아닌,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간 노력하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의 심리적 기제를 예측함으로써 여가학 및 관광학의 학술적 지평을 넓히는 한편, 캠핑 산업의 프로그램 기획 및 타겟 마케팅 전략 수립, 나아가 건전한 야외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 실무적 영역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설과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H1 : 태도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H2 :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H3 : 긍정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H4 : 부정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H5 :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유의한 영

향을 나타낼 것이다.

H6 :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H7 :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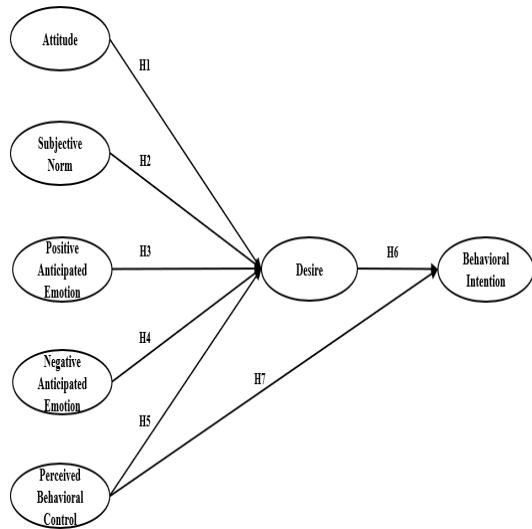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 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및 정제

인 연구의 모집단은 Stebbins(1982)가 제시한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의 속성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캠핑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자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주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여가 경험을 가진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의도적 표본추출과 눈덩이 표본추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Veal, 2017). 본 조사에 앞서, 설문 문항의 명확성, 신뢰도 및 타당도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5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문

항의 표현을 개선하고 모호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최종적인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24년 여름,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며 보안성이 확보된 온라인 설문 플랫폼인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초기 응답은 총 500부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윤리적 연구 절차를 준수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응답 내용의 비밀 보장, 그리고 자발적 참여 및 불이익 없는 철회 권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다.

초기에 수집된 500부의 응답에 대해 자료의 질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자료 검증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96부를 제외하였다. 응답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진지한 여가 척도에서 중립점 이하를 평가한 응답자 (김미량, 김재운, 황선환, 2010; Stebbins, 2015), (2) 캠핑 참여 횟수가 5회 미만인 응답자, (3) 숙박 없이 당일치기 활동에만 참여한 응답자, (4) 일관성 없거나 불성실한 응답(패턴화되거나 불완전한 응답)을 제공한 응답자이다.

추가적으로, 단변량 이상치(univariate outliers,  $|z| > 3.2$ )와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p < .001$ )를 사용하여 식별된 다변량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적용한 후, 최종 분석에는 총 404부의 유효 표본이 사용되었다. 최소 필요 표본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G\*Power 3.1 (Faul et al., 2009)을 활용하여 사전 검정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간 효과 크기( $f = 0.15$ ), 유의 수준( $p < .001$ ), 통계적 검정력 0.95(Cohen, 1988)를 가정했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19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 표본 수 404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충분한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하였다.

## 2. 표본의 특성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 응답 404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 52.5%(212명), 여성 47.5%(192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54.7%, 221명)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25.2%, 102명), 20대(14.6%, 59명), 50대(5.4%,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 49.8%(201명), 기혼 48.0%(194명), 기타 2.2%(9명)였다. 참여 경력(년)은 1~2년(32.2%), 3~4년(31.4%), 10년 이상(19.9%), 5~9년(12.4%), 1년 미만(9.2%) 순이었다. 주요 동반자는 가족(52.2%), 친구(29.5%), 기타(18.3%)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참여 횟수는 평균 6.27회로, 참여자들이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여가 참여도를 보임을 시사한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분류	n	%
성별	남성	212	52.5
	여성	192	47.5
연령	20s	59	14.6
	30s	221	54.7
	40s	102	25.2
	50s	22	5.4
혼인상태	미혼	201	49.8
	기혼	194	48.0
	기타	9	2.2
참여경력 (년)	1년 이하	37	9.2
	1-2	130	32.2
	3-4	127	31.4
	5-9	50	12.4
	10년 이상	60	19.9
참여 동반자	가족	211	52.2
	동료	119	29.5
	기타	74	18.3
연평균 참여 횟수		6.27±9.80	
합		404	100

##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체육학 교수 3인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캠핑 참여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이를 확장한 EMGB의 틀을 구축하였다. MGB의 핵심 구성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예기 정서, 열망 및 행동 의도는 Ajzen(1991), Perugini & Bagozzi(2001), 그리고 국내외 여가 및 관광 맥락에서 행동 의도를 예측한 연구(송학준, 이충기, 2010; Paudel et al., 2022)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캠핑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EMGB 구성 요소를 반영하는 7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태도 4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긍정적 예기정서 4문항, 부정적 예기정서 4문항, 지각된 행동통제 4문항, 열망 4문항, 행동 의도 4문항이다.

또한, 진지한 여가 참여자를 식별하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tebbins(2015)와 김미량, 김재운, 황선환(2010)를 기반으로 진지한 여가의 6가지 핵심 차원(인내, 개인적 노력, 여가 경력, 지속적 혜택, 독특한 정신, 정체성)을 나타내는 6개 항목을 수정하였다. 측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진지한 여가의 필수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권고에 따라 각 차원별로 하나의 대표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6개 항목은 응답자 선별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 성별, 연령, 참여 경력 등 6개의 인구통계학적 항목이 추가되어 총 40개 문항(EMGB 28문항, 진지한 여가 6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제외한 모든 측정 항목은 중립적인 중간점을 배제하고 응답자의 명확한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2.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

변인	문항	Standardized Coefficient	P	C. R	AVE	Cronbach's $\alpha$
태도	캠핑에 참여하는 것은 유용한 행동이다	.806	***	.815	.611	.781
	캠핑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787	***			
	캠핑에 참여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750	***			
주관적 규범	주변인들은 내가 캠핑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705	***	.787	.553	.781
	주변인들은 내가 캠핑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775	***			
	주변인들은 내가 캠핑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749	***			
긍정정서	캠핑을 하면 기쁠 것이다	.755	***	.810	.588	.774
	캠핑을 하면 신명날 것이다	.713	***			
	캠핑을 한다면 만족할 것이다	.828	***			
부정정서	캠핑을 하지 못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880	***	.880	.710	.805
	캠핑을 하지 못한다면 슬플 것이다	.854	***			
	캠핑을 못한다면 우울할 것이다	.792	***			
지각된 행동통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캠핑에 참여 할 수 있다	.798	***	.789	.556	.878
	나는 캠핑에 참여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721	***			
	나는 캠핑에 참여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715	***			
열망	가까운 미래에 캠핑을 하고자 하는 나의 희망은 열정적이다	.737	***	.811	.589	.826
	가까운 미래에 캠핑을 하는 것을 희망한다	.819	***			
	가까운 미래에 캠핑을 하는 것을 열망한다	.743	***			
행동의도	나는 가까운 미래에 캠핑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755	***	.868	.622	.865
	나는 가까운 미래에 캠핑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96	***			
	나는 가까운 미래에 캠핑을 할 의도가 있다	.800	***			
	나는 가까운 미래에 다시 캠핑을 할 것이다	.802	***			
Initial model fit: $\chi^2=1067.488$ , $df=329$ , $\chi^2/df=3.245$ , CFI=.884, TLI=.866, RMSEA=.075						
Final model fit: $\chi^2=516.165$ , $df=183$ , $\chi^2/df=2.821$ , CFI=.933, TLI=.915, RMSEA=.067						

#### 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7.0과 AMOS 27.0을 활용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모형의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구성 개념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및 합성 신뢰도(CR)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집중 타당도는 평균 분산 추출값(AVE)을 계산하여 평가하였으며, 판별 타당도는 Fornell and Larcker(1981)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였다. 셋째,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모형에서 가설로 설정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 Ⅲ. 결과

#### 1. 측정모형 분석 결과

측정 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초기 40개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작했으나, Hair et al.(2010) 및 Kline(2016)의 권고에 따라 낮은 요인 적재값( $< .50$ )과 높은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보인 6개 항목을 제거하였다. 수정 과정을 거친 최종 모형에는 34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728.419$ ,  $df=249$ ,  $\chi^2 / df=2.925$ , CFI=.926, TLI=.912, RMSEA=.068 로 나타났다. 모든 지수가 Hu &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여 수용 가능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항목의 표준화된 요인 적재값은 .60을 초과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합성 신뢰도(CR)는 .843에서 .886 범위로 나타나 최소 허용 기준인 .70을 충족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평균 분산 추출값(AVE)은 .588에서 .711 범위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의 기준인 .50을 만족하였다. 또한, 잠재 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AVE의 제곱근 값(대각선에 보고됨)이 더 크므로 판별 타당도도 확보되었다(표 2).

### 2.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도

〈표 3〉은 상관관계 행렬, 기술통계 및 판별 타당도 결과를 제시한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열망과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구성 개념들은 예상된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각 잠재 변수의 AVE 제곱근 값은 해당 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크므로, Fornell and Larcker(1981) 기준에 따라 판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062에서 .693 범위였으며, 모든 값이 .80 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Kline, 2016). 평균과 표준편차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

표 3.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도

변인	1	2	3	4	5	6	7	<i>M±sd</i>
1	.782							4.98±.79
2	.469*** (.220)	.774						4.94±1.01
3	.693*** (.480)	.532*** (.283)	.767					5.15±.82
4	.101 (.010)	.117 (.014)	.062 (.004)	.843				4.11±1.21
5	.397*** (.158)	.382*** (.146)	.295*** (.087)	.101 (.010)	.746			4.78±.85
6	.522*** (.272)	.428*** (.183)	.587*** (.345)	.275*** (.076)	.298*** (.089)	.805		5.04±.78
7	.592*** (.350)	.431*** (.186)	.622*** (.387)	.082 (.007)	.270*** (.073)	.605*** (.366)	.789	5.16±.73

1. 태도, 2. 주관적 규범, 3. 긍정정서, 4. 부정정서, 5. 지각된 행동통제, 6. 열망, 7. 행동의도, \*\*\* $p < .001$ .

### 3.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가설로 설정된 구성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 모형(structural model)을 평가하였다. 모형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표 4).  $\chi^2 = 551.659$ ,  $df=187$ ,  $\chi^2 / df=2.950$ , CFI=.926, TLI=.909, RMSEA=.070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준치(Hu & Bentler, 1999; Kline, 2016)를 충족한다. 특히,  $\chi^2 / df \leq 3.00$ , CFI  $\geq .90$ , TLI  $\geq .90$ , RMSEA  $\leq .08$ 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모형이 가설 검증에 적합함을 시사한다. 또한, 결정계수( $R^2$ ) 분석 결과, 모형은 열망의 분산을 68.3%, 행동 의도의 분산을 77.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hen(1988)에 따르면  $R^2$  값이 .26을 초과할 경우 설명력이 상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모형이 참여자의 행동 의도 형성을 설명하는 데 강력한 설명력을 제공함을 지지한다.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변인	$\chi^2 / df$	$Q$	CFI	TLI	RMSEA
Model fit	551.659/187	2.950	.926	.909	.070
Standard	$p < .05$	$\leq 3$	$\geq .90$	$\geq .90$	$\leq .08$
결과	채택		채택	채택	채택

#### 4. 가설 검증 결과 및 설명력

가설 검증 결과, 총 일곱 개의 가설 중 네개 개는 채택되었고, 세 개는 기각되었다(표 5). 구체적으로, 태도(H1)와 주관적 규범(H2)은 열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beta=.015, p=.914; \beta=-.070, p=.329$ ). 반면, 긍정 정서(H3:  $\beta=.606, p<.001$ ), 부정 정서(H4:  $\beta=.167, p<.001$ ),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H5:  $\beta=.206, p<.001$ )는 열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H6)는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다( $\beta=.048, p=.435$ ). 이는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이 열망에 의해 완전 매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열망(H7)은 행동 의도에 강력하고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beta=.992, p<.001$ ). 이는 본 모형의 핵심 명제를 확인하는 결과이다. 모형은 열망의 분산을 68.3% ( $R^2=.683$ ), 행동 의도의 분산을 77.7%( $R^2=.777$ ) 설명하였다(그림 2).

이 결과는 본 모형이 특히 행동 의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설명력을 제공함을 보여준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비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정서 및 통제 관련 변수들의 강력한 효과 덕분에 모형은 높은 설명력을 유지하였다. 이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의 행동 의도 형성이 주로 긍정적 및 부정적 예기정서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주도됨을 시사한다.

표 5. 가설 검증 결과

경로	$\beta$	S.E.	C.R.	p-value	Status
H1 A→D	.015	.138	.109	.914	Rejected
H2 SN→D	-.070	.072	-.976	.329	Rejected
H3 PAE→D	.606	.149	4.067	***	Supported
H4 NAE→D	.167	.032	5.255	***	Supported
H5 PBC→D	.206	.063	3.292	***	Supported
H6 PBC→BI	.048	.062	.781	.435	Rejected
H7 D→BI	.992	.092	10.743	***	Suppor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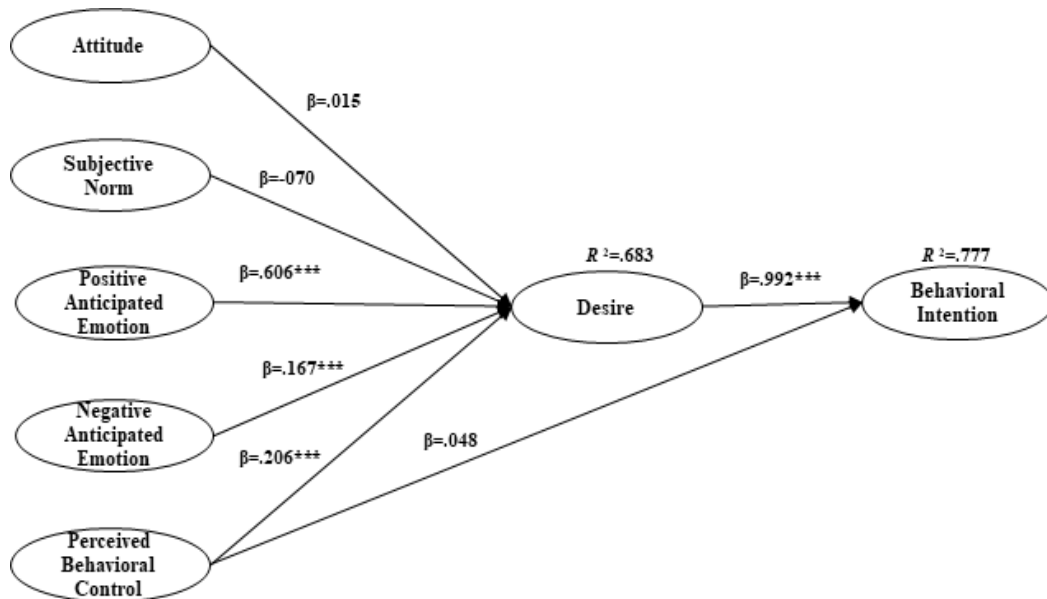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검증

#### IV. 논의

이 연구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캠퍼 집단을 중심으로, 그들의 행동 의도 형성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계획 행동 이론(TPB)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예기정서라는 감정 변인을 통합한 확장 모형(EMGB)을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여가 실천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제안된 구조 모형은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이는 모형의 이론적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시사한다.

주요 가설 검증 결과, 진지한 여가 참여자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전통적인 TPB 요인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이들의 열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는 캠핑과 같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몰입적 여가 활동에서는 사회적 기대나 단순한 호의도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동기와 감정적 기대가 행동의 더 큰 결정 요인임을 시사한다.

반면,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모두 열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가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감정적 보상과 자율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내재적 행동 동기를 강력하게 자극함을 입증한다. 특히,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열망을 완전하게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외적 자원이나 조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면의 열망이 결정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는 구조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열망은 행동 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의 활동 지속성과 몰입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을 재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캠핑 열망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

각된 것은 전통적인 계획 행동 이론(TPB)의 일반적인 예측 및 다수 여가 연구의 발견과 확연히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결과이다(Ajzen, 1991; Madden, Ellen, & Ajzen, 1992). 이러한 차이는 연구 표본이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참여자'라는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Stebbins, 2015), 인지적 요인이 여가 행동 예측력을 상실하는 기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은 해당 활동(캠핑)을 단순히 '재미있는' 활동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의 목적의식을 제공하는 핵심 가치로 내재화한다(Stebbins, 2015). 이들에게 '캠핑은 좋다'는 태도는 이미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므로, 태도라는 변수가 '캠핑을 할지 말지'에 대한 추가적인 예측 변별력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즉, 태도가 만족의 포화점에 도달하여 행동의 동인으로서 기능하기보다 배경적 요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된다(김진옥, 김남조, 2013). 태도는 비참여자나 초보 참여자의 행동 의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미 고도로 몰입된 진지한 참여자에게는 행동 결정 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미미해지는 것이다.

둘째, 주관적 규범은 가족, 친구, 사회적 집단 등 중요한 타인의 기대와 압력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는 외재적 동기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진지한 여가 활동은 본질적으로 활동 자체의 즐거움과 만족에서 비롯되는 내재적 동기와 개인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다(Deci & Ryan, 1985). 캠핑과 같은 개인적 성향이 강한 여가 활동을 장기간 지속하는 참여자는 외부의 사회적 압력이나 기대에 덜 민감해지며, 활동 참여 결정에 있어 외부 요인(주관적 규범)보다 내부적 요인(내재적 동기, 감정적 기대)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된다(김진옥, 김남조, 2013; 최연화, 정창인, 이승곤, 2014). 이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자율적 행동이 지배적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캠핑 열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진지한 여가(SL)로서의 캠핑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에서 기인한다. 진지한 캠퍼들에게 캠핑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닌 삶의 양식(Lifestyle)으로 고착화되어 있다(이유진, 2025). 이는 장비의 전문화와 캠핑 기술의 숙련 과정을 거치며 태도가 이미 행동의 전제 조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압박(주관적 규범)보다 개별화된 캠핑 스타일(예: 솔로 캠핑, 오지 캠핑)을 추구하는 자율성이 강해지면서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면의 열망에 집중하게 된다(민경일 외, 2025).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진지한 캠퍼들의 의사결정은 이성적인 '태도'나 외적인 '규범'의 포화 상태를 지나,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삶의 양식에 완전히 통합된 정서적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인지적 판단이 여가 행동의 결정적 변별력을 상실하는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본 연구가 주목한 예기정서와 열망의 역할이 더욱 부각됨을 의미한다.

셋째, 인지적 요인과 대조적으로, 긍정적 및 부정적 예기정서는 열망과 매우 강력한 정적 관계를 형성하였고,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강지현, 송정명, 전익기, 2013). 긍정적 예기정서는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즐거움, 만족감 등 정서적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부정적 예기정서 역시 열망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캠핑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 불안, 초조함 등 활동 부재에 대한 심리적 비용을 회피하려는 회피 동기가 행동을 촉발하는 주요 동인임을 의미한다(Perugini & Bagozzi, 2001). 진지한 여가 참여자에게 캠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약속과 같으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서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약속을 어겼을 때의

정서적 손실을 회피하려는 강렬한 욕구가 동반되는 것이다. 이 두 정서적 요인은 진지한 여가 행동이 감정적 균형과 동기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작동함을 입증한다. 즉, 캠핑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심리적 케어(Psychological care)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최근 캠핑 연구들이 강조하는 '치유와 회복'의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Han et al., 2023).

이 연구에서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노정희, 김승현, 2013; Bagozi & Dhoakla, 2006; Taylor, 2007), 행동 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열망을 완전하게 매개하는 독특한 경로가 확인되었다. TPB에서는 PBC가 행동 의도와 행동 자체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상정된다(Ajzen, 1991). 이는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인식이 곧 '그 행동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경로가 기각되었음을 보여준다.

캠핑과 같은 진지한 여가 활동의 맥락에서 PBC(장비, 시간, 재정적 여건 등)는 '캠핑을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직접 유발하기보다, '나는 캠핑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강한 자기 효능감으로 변환된다(Bandura, 1977). 이 자기 효능감은 활동에 대한 내적 열망을 더욱 강화하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여건이 되니 캠핑을 해야겠다(계획)'가 아니라, '여건이 되니 캠핑에 대한 내 강한 욕구(열망)를 채워야겠다'는 심리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PBC는 행동 의도의 합리적 예측 변수라기보다, 열망을 촉진하여 행동 실행의 자신감을 부여하는 동기적 강화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열망은 본 연구 모형에서 모든 선행변인(긍정/부정 예기정서, PBC)의 효과를 행동 의도로 통합하고 증폭시키는 핵심 매개 변수이

자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로 기능하였다. 이는 진지한 여가 연구에서 행동의 지속성과 몰입을 설명하기 위해 인지적 판단(태도, 주관적 규범)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정서적이고 내재적 동기(열망)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임을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이다.

이러한 결과는 캠핑 산업에 중요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캠핑 마케팅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캠핑 장비의 기능 홍보보다는, 캠핑을 하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을 자극하거나 참여자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정체성 중심의 마케팅이 열망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PBC가 열망을 매개하는 만큼 캠핑 참여의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실시간 예약 시스템의 고도화나 장비 보관 서비스 등은 캠퍼의 행동 통제력을 높여 최종적으로 참여 열망을 증폭시키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열망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매우 높게( $\beta=.992$ )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통계적으로는 다중공선성의 우려를 낳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상관계수 및 VIF 검토 결과 판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론적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의 '심리적 일체화(Psychological Identification)'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과 달리, 고도로 숙련되고 정체성이 확립된 진지한 캠퍼들에게 있어 참여에 대한 강렬한 갈망(Desire)은 인지적 갈등이나 주저함 없이 즉각적인 행동 의도로 전이된다(Perugini & Bagozzi, 2001). 즉, 이들에게 열망과 의도는 분리된 의사결정 단계라기보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곧 '하겠다'는 강력한 확신으로 직결되는 단일한 동기적 에너지의 흐름임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진지한 여가 맥락에서 EMGB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인지적 판단이 수렴된 이후의 정서적 열망이 실제 행

동으로 전이되는 기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캠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행동 의도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계획 행동 이론(TPB)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예기정서라는 감정 변인을 통합한 확장 목표 지향적 행동 모형(EMGB)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분석 결과, 제안된 구조 모형은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확보하며, 진지한 여가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모형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했다.

진지한 여가 참여자는 단순한 일회성 체험자가 아니라, 활동의 지속성과 몰입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반영하는 활동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기존 TPB의 핵심 요인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캠핑 열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는데, 이는 이미 활동에 깊이 몰입된 진지한 참여자들에게는 캠핑이 좋다는 인지적 호의도나 남들의 시선과 같은 사회적 기대가 행동을 결정하는 추가적인 변별력을 제공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즉, 이들에게는 외적 요인보다는 내면화된 동기와 감정적 기대가 훨씬 더 큰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모두 열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가 활동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서적 보상,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을 피하려는 회피 동기, 그리고 활동 실행의 자율적 가능성 인식이 그들의 내재적 열망을 강력하게 자극함을 입증한다. 특히 부정적 예기정서의 유의성은

캠핑이 이들에게 단순히 취미를 넘어, 부채 시 심리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삶의 중요한 약속과 같다는 몰입적 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열망을 완전하게 매개하는 독특한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는 캠핑 장비, 시간, 기술 등 외적 자원이나 여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이 자원이 행동 의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면의 강한 욕구(열망)라는 자기 효능감의 매개 과정이 결정적임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열망은 행동 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진지한 여가 활동의 지속성과 몰입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론적으로 행동 모형의 상황 의존성, 즉 TPB 요인의 효용성이 참여자의 몰입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입증하며, 정서적 동기, 특히 회피 동기(부정적 예기정서)가 진지한 여가 행동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제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을 강화하는 동기적 강화 요인으로 작용함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행동 모형의 경로 해석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실무적으로, 진지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타인의 추천과 같은 인지적 이점보다, 자연 속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성취감 등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성적 보상을 극대화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장비 대여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참여자의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지각된 행동통제)을 강화하는 것이 내적 열망을 증폭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캠핑이라는 단일 활동과 국내 캠퍼라는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열망과 행동 의도의 측정 문항들이 일부

개념적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진지한 여가와 같이 몰입도가 높은 활동에서는 참여자의 심리 상태와 실행 계획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어, 기존 표준 척도가 이를 미세하게 분별해 내는 데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지한 여가 유형과 종단적 연구 설계를 적용하여 열망과 행동의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여가 경력 수준과 같은 진지한 여가 특성을 조절 변수로 통합하여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지현, 송정명, 전익기(2013). 스포츠관광 참가자의 목표지향적 행동이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3), 233-248.
- 공개, 사혜지(2024). 확장된 목표지향적행동모델(EMGB)을 활용한 노년층의 온라인 여가 스포츠용품 구매 의도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63(3), 117-129.
- 김미량, 김재운, 황선환(2010). 진지한 여가척도(SLIM)의 단일문항측정 적용검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4), 147-156.
- 김진옥, 김남조(2013). 오토캠핑 참여자의 동기, 가치, 만족도, 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관광연구*, 28(5), 45-70.
- 노정희, 김승현(2013). 대학생의 그룹여행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목표지향 행동모델과 사회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7(6), 319-339.
- 민경일, 이유진, 황선환(2025). 캠핑 참여자의 여가 경험, 진지한 여가, 여가만족 및 행동의도 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14(1), 167-185.
- 이유진, 황선환(2024). 캠핑 참여자의 여가소비성향에 따른 경험적 여가 행동. *한국융합과학회지*, 13(7), 15-30.

- 이유진(2025). 캠핑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여가계약과 여가계약협 상의 길항 메커니즘.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9(1), 77-87.
- 송학준, 이충기(201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 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객의 행동의 도 예측. *관광레저연구*, 22(5), 341-360.
- 최연화, 정찬인, & 이승곤. (2014). 오토캠핑 참여 동기 유형에 따른 행태분석. *관광연구*, 29(1), 41-60.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rai, Y. (2000). The meaning of leisure experiences for self-determination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2(1), 105-12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ttman, J. R., & Park, C. W. (1980). Effects of prior knowledge and phase of the choice process on consumer decision processes: A protocol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3), 234-248.
- Bettman, J. R., & Sujan, M. (1987). Effects of framing on evaluation of comparable and noncomparable alternatives by expert and novice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2), 141-154.
- Carrus, G., Passafaro, P., & Bonnes, M. (2008). Emotions, habits and rational choices in ecological behaviours: The case of recycling and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1), 51-62.
- Clawson, M., & Knetsch, J. L. (1966). *Economics of outdoor recre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oghlan, A. (2012). A typology of visitor experiences at marine protected areas. *Tourism Management*, 33(2), 438-44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e, S. (2004). Beyond the leisure experience: Exploring the role of time in tourism consump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3), 443-467.
- Conner, M., & Sparks, P. (200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health behaviour*. In M. Conner & P. Norman (Eds.), *Predicting health behaviour (2nd ed., pp. 170-222)*. Open University Press.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Plenum.
- Esposito, G., Sottini, E., & Girelli, L. (2016). The serious leisure inventory and measur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validation in a sample of Italian athletes. *Leisure Studies*, 35(5), 628-646.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Extensions to multiple and logistic regression.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llant, M. P. (2011). The challenge of integrating self-efficacy and action

- control theories in health behavior research. *Health Psychology Review*, 5(2), 119–141.
-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Prentice Hall.
- Han, H., Koo, B., & Chua, B. L. (2023). Moderating effect of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mping motives and behavioral intentions: An application of the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Outdoor Recreation and Tourism*, 42, 100625.
- Hassell, D., Moore, S. A., & Macbeth, J. (2015). Researching the leisure experience in tourism. *Annals of Leisure Research*, 18(1), 1–17.
- Henderson, K. A., Stalnaker, D., & Taylor,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7(4), 511–526.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hnson, K. E., & Mervis, C. B. (1997). Effects of varying levels of expertise on the linkage of components of concept and taxonom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26(3), 248–277.
- Kaplan, S. (1995). The restorative benefits of nature: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5(3), 169–182.
- Kim, S. H., Ritchie, J. R. B., & McCormick, B. (2012). Diversifying the leisure experience concept: An integrative framework. *Leisure Sciences*, 34(3), 245–262.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ublications.
- Madden, T. J., Ellen, P. S., & Ajzen, I. (1992).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attitudinal and normative aspects of intention fo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9(3), 395–402.
- Paudel, R., Le, H. T., & Kim, M. S. (2022). Applying the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o predict destination loyalty: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tourist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9(6), 509–524.
- Pernecky, T., & Jamal, T. (2010). Sense of place and the tourism experience. *Journal of Tourism & Cultural Change*, 8(3), 231–248.
- Perugini, M., & Bagozzi, R. P. (2001).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u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1), 79–98.
- Schouten, J. W., & McAlexander, J. H. (2007). Subcultures of consumption: An ethnography of the new biker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4), 431–441.
- Stebbins, R. A. (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2), 251–272.
- Stebbins, R. A. (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cGill-Queen's

- University Press.
- Stebbins, R. A. (2007).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Transaction Publishers.
- Stebbins, R. A. (2015).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Vol. 3)*. Transaction Publishers.
- Taylor, S. A. (2007). The addition of anticipated regret to attitudinally based, goal directed models of information search behaviour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and risk.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4), 739–768.
- Veal, A. J. (2017). *Leisure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3rd ed.)*. Routledge.